

정청래 대표 ‘1인1표제’ 재추진… 리더십 다시 시험대

민주 최고위 만장일치 결정…이언주·강득구·황명선 문제 제기
“정 대표, 차기 전대 출마시 수혜”…8월 전대 앞 비당권과 전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최고위에 자신과 가까운 당권과 인사 2명이 합류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1인1표제 재추진에 나서자마자 비당권파가 일제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도부 내 뚜렷한 균열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최고위에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최고위에서 비공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당권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연치 최고위 구성원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1인1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9명의 최고위원 중 정 대표 본인, 정 대표 체제에서 당적을 지녔던 최고위원 2명(문정복·이성운), 정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2명 등 5명이 적극 찬성한 반면 나머지 4명은 사실상 반대(조건부 찬성) 내지 신중·중립 입장을 보이면서 계파 대립이 표면화한 것이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이 정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1인1표제 도입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며 이에 관한 문제를 당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1인1표제를 반대해왔다.

이에 1인1표제를 둘러싼 최고위 내 균열이 여권

내 세력 분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1인1표제를 둘러싼 대립이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차기 당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대결 구도로 치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다.

당내에는 1인1표제로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질 경우 권리당원이 주요 지지기반인 정 대표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정 대표에 비판적인 한 의원은 18일 언론과 통화에서 “다른 현안이 많은데 굳이 1인1표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라며 “다음 주 당내 논쟁이 불붙으면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당원 주권주의 측면에서 1인1표제의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대표가 이번에는 도입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도 같이 나온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당내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 대표와 가까운 양문석 의원은 16일 밤 정 대표와 ‘친명’ (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만나 서로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작년 전대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한 박 의원과 함께 한 사진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 대표 자신의 ‘원팀’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동훈 “끝까지 가겠다” 항전 의지

SNS에 “국힘 제명 추진은 정치 보복”…당원계시판 논란 정면 돌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자신에 대한 당의 징계(제명) 추진과 관련해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국민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후 침묵을 깨고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2분 5초 분량의 영상에서 “당권으로 정치보복을 해서 제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뺏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항전 의지를 다졌다.

이는 가족 명의로 동원된 ‘당원 계시판’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의 메시지에 당내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박정호 의원은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결단이 당 정상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고,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사태의 본질은 계엄을 막고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에 대한 ‘윤여객인’ 세력의 증오이자 보복”이라며 한 전 대표를 감쌌다.

이날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인 입장을 정리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준 것은 다행”이라며 “당의 화합을 위한 하나의 바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당 지도부를 포함한 장 대표 측 인사들은 “진정성 없는 ‘금쪽이’ 사과”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송인석 원내대표는 “진정성 있게 과거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고집했다.

한 전 대표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시작하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강원지사 출마 위해 정무수석 사퇴

靑 참모진 개편…김병욱 정무비서관·김남준 대변인 조만간 사직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자로 홍 전 원내대표가 합류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사직 후 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사직은 지선을 앞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인 ‘7인회’ 출신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정무비서관으로는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고용진 전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다만 이 수석은 “아직 확정됐다고 밝히기 어렵다”며 “정무수석실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빠지면 정부 기능에 손실이 올 수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을 필두로 다수의 비서관 및 행정관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총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과 맞물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청 차출론, 김용범 정책실장의 호남 차출론에 주목하는 시선도 여전히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청장 출마 준비 시의원 ‘당원 자격 정지’

민주 시의원 4명, 불법 당원 모집 징계 처분…3명은 ‘당직 자격 정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위법한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광주시의원 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구청장 후보군으로 꺾히는 A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중징계를 받아 향후 정치적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회부된 광주시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A의원이 모집한 당원 중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부적절

한 사례가 20건 이상 확인됐다고 판단, ‘당원 자격 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정당에서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당헌·당규상 최근 3년 이내에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이력은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및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또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의원은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경선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A의원은 “문제가 된 당원 명단은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중앙당 재심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의 시의원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불법 모집 사례가 20건 이하여서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당직 자격 정지’를 내렸다.

B·C 의원은 당직 정지 1개월, D 의원은 당직 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직 정지는 당내 위원장 등 특정 직책을 맡는 것만 제한될 뿐, 당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징계에 속한다. 이들 3명은 징계 결과를 수용하고 별도의 이의 신청 없이 향후 당원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선인 기자 sunin@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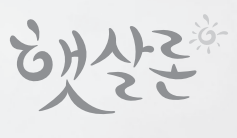
누구에겐아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애니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